

… 시장 동향 …

전 세계적으로 저성장·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기업의 경영 활동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가운데, 에너지 및 화학 산업에서도 다양한 환경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이러한 대내·외 시장 동향을 분석하여 경영 활동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각 시나리오에 대한 유연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석유개발 사업

유가 동향

국가 유가는 두바이유를 기준으로 배럴당 108달러를 기록한 2014년 6월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6년 1월 중 배럴당 26달러를 기록 하였으나, 이후 등락을 거듭하며 상승하기 시작해 2016년 12월에는 배럴당 평균 52달러를 기록하였습니다.

산업 주요 동향

비전통자원을 중심으로 한 미국의 폭발적인 원유 공급과 저유가는 석유개발 산업 내 다양한 변화를 촉발시키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업체들은 심해 유전(Deep-Water) 석유 개발, LNG 개발, 극지 유전 개발 등 고비용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를 축소 혹은 유보하고 있으며, 수익성 중심으로 자사의 자산 포트폴리오를 적극적으로 재편하고 있습니다.

화학 사업

기초유화사업 동향

2009년 이후 중국 경기부양책의 영향 등으로 석유화학산업 상황이 회복되었으며, 중국과 중동의 신증설, 유로존 재정위기, 글로벌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시장변동성이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셰일가스, 석탄 등 비전통적 저가원료의 확대가 시장변동의 주요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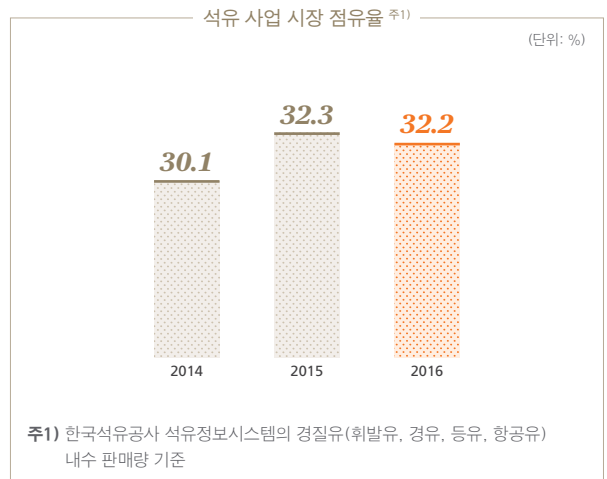
화학소재사업 동향

내수업종으로 출발한 화학소재사업은 수출 주도형 산업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화학소재사업의 성장성은 곧 전 세계 경기 성장과 관련이 깊습니다. 특히 중국의 수요가 많아 중국 경제 성장과 밀접하며, 최근에는 남미, 동남아시아, 인도 등 신흥 성장시장으로의 사업 영역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석유 사업

석유제품 소비 동향

2016년 12월 누적 주요 석유제품 내수 수요는 전년 동기 대비 11.1% 상승하였습니다. 수송용 연료인 휘발유, 경유 및 항공유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발전 및 산업용 연료 수요 확대 등 비수송용 연료인 등유, 중질유 및 LPG 수요 또한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하였습니다. SK이노베이션의 내수시장 점유율은 전년 대비 0.1% 하락한 32.2%로 나타났습니다.



윤활유 사업

국내·외 시장 동향

윤활유 완제품의 주요 원재료인 윤활기유(Base Oil)는 원유 정제과정 중 고도화설비인 Hydrocracker에서 생산되는 UCO(Unconverted Oil, 미전환유)를 감압증류 및 촉매 등 추가 공정을 통해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대규모 시설투자가 가능한 정유회사 이외에는 시장 진입이 어려운 것이 특징입니다.

이러한 윤활기유 시장은 품질 및 성상에 따라 시장을 세분화할 수 있으며, 그룹별로 상이한 수요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품의 성능 및 사용수명이 열위인 윤활기유(Group I)의 수요는 성장성이 둔화되면서 시장규모가 축소되고 있으며 고급기유(Group II·III 등) 시장은 환경규제와 수요 성향의 변화에 힘입어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내 윤활기유 시장은 정제설비와 고도화설비를 갖추고 있는 4개 정유사가 참여하고 있으며, 공급초과로 인해 대부분 생산 제품은 기타 아시아 지역, 미주 및 유럽 등지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국내·외 경쟁 여건 동향

국내 윤활유 시장은 윤활유공업협회 정회원 등록 기업 19개, 비등록 기업 포함 약 200여 개 이상의 기업이 참여하고 있어 완전경쟁시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주요 기업으로는 SK루브리컨츠, GS칼텍스, 극동유화, 미창석유공업, 동남석유공업, 한국발보린, 장암칼스, 에쓰오 일토탈윤활유(STLC), 현대오일뱅크 등이 있습니다. 해외 윤활유 완제품 시장의 경우 Shell, ExxonMobil, BP, Chevron, TOTAL, PetroChina, SINOPEC, FUCHS, Ashland(Valvoline) 등 다수의 메이저 정유 회사들이 윤활유 시장을 점유하고 있으며, 각 지역마다 다수의 윤활유 회사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국내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과 경쟁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배터리 및 정보전자소재 사업

중대형 배터리 사업 동향

중대형 배터리 사업은 친환경 전기자동차 및 ESS(Energy Storage System)^{주1)}에 사용되는 대용량 리튬이온 배터리를 생산, 판매하는 사업입니다. 세계 각국의 환경 규제와 더불어 전기자동차 기술이 발전하고 경제성이 강화됨에 따라 향후 친환경 전기자동차 시장의 빠른 성장과 폭넓은 확대가 예상됩니다. 또한 에너지 안보(Energy Security)^{주2)} 강화 추세에 따라 ESS에 대한 관심과 수요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1) 대규모로 생산된 전력을 일시 저장한 후, 필요 시 끌어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주2) 에너지는 모든 경제활동의 토대이자 국가의 안전과도 깊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에너지의 안정적·합리적인 공급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나타내는 개념

정보전자소재 사업 동향

SK이노베이션의 정보전자소재 사업은 전지소재(LiBS) 사업과 회로소재(FCCL)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LiBS(Lithium-ion Battery Separator)는 리튬이온 배터리의 핵심소재로 양극과 음극의 직접적인 접촉을 차단하고 리튬이온의 이동 통로를 제공해주는 역할을 하며, 배터리 시장의 성장과 함께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FCCL(Flexible Copper Clad Laminate)은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의 연성 회로기판에 활용되는 주요 소재로 동박과 폴리이미드(Poly Imide)를 결합하여 제조되며, 스마트기기와 IT 기기의 고성능화·소형화 추세에 따라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공급과잉 현상에 따라 업체간 경쟁이 지속되고 있지만 적용 분야 확대에 따라 향후 수급상황은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